

친우 박성민을 떠나 보내면서



성민을 처음 만난것은 1958 년 서울대학교 의예과 때 였었다. 전에 듣지도 못했던 부산에 있는 작은학교인 해동고교에서 혼자 서울대학에 들어온 시골(?)뜨기 이었는데 또렷도렷한 인상에 호감이 가서 친우가 되었다. 우리 그룹과 음악감상등을 자주 같이 했고 1963 년 Cholera 방역 team 으로 인천에 두 주일 같이 지나면서 매일 저녁 맥주를 마시며 청춘을 즐기던 때가 거의 60 년전 일인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.

성민은 Chicago 에서 Intern, Pediatric Resident 을 하고 Miami 와 San Diego 에서 Fellowship 후 New York Columbia Univ. 에서 Pulmonary Subspecialty 를 끝내고 다시 San Diego 로 돌아와 UCSD 에서 Staff 로 있다가 개업을 시작했다. 열심히 바쁘게 일하다 40 년 후에 은퇴를 하였다.

나는 Los Angeles 남부에 있는 Harbor City Kaiser 에서 Cardiologist 로 있었고 그때만 해도 traffic 이 별로 없어서 서로 자주 왕래를 하였었다. 또 우리들은 나이가 같은 두 아이들이 있어 우리 두 가정은 많은 주말을 모두 같이 재미있게 보내곤 하였다.

원래 매사에 치밀하고 정확한 성격이라 개업, 가정 모두 계획대로 잘 이루었다. 두 아들은 Stanford 를 졸업하고 사회 활동을 원만히 하던중 3 년전 불행이도 첫째 아들 Richard 가 휴가로 간 Hawaii 에서 어이없는 사고로 사망하였다. 부모에게 말할수없는 충격을 주었고 이것이 친우가 가졌던 Parkinson 병을 빠르게 악화 시켰으리라 본다.

항상 개업에 바빠서 San Diego 집 근처에 있는 US Open 을 했던 유명한 Torrey Pine Golf Club 에서 그때 Lady Club 간부로 있던 부인 덕으로 우리 부부가 자주 가서 골프를 하였다. 하지만 본인은 시간이 없어 부인 하고만 골프치고 저녁만 같이 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한다.

성민은 모든 것을 차근차근하고 빠진 것 없이 하였다. 한 예를 들면 우리 부부들이 젊었을 때 Tennis 를 같이 치곤 하였는데 시작 전 후에 항상 탈수를 방지하려고 정확한 양의 소금과 물을 마시었다. 그리고 항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였었다. 피부 관리도 빠짐없이 정확히 하여 운명시에 아직도 얼굴이 주름없는 동안이었고 흰 머리도 별로 없었다. 바쁜 중에도 교회에서 장로 일도 맡아보았다.

그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몇 년전 부터 back pain 으로 시작해서 Parkinson 병으로 진전 되었고 최근에 갑자기 악화 되면서 자신이 Hospice Care 받기를 자진하였다. 사후에 몸은 Scientific Research Organization program 에 의해 처리한 후 장례식 대신 모든것이 정리된 후에 Celebration of Life 로 친우들을 초청하여 자기를 생각하면서 정다운 시간을 갖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었다. 역시 박성민 답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결하고 떠난 것이었다.

하지만 Irony 한것은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 했지만 많은 동기 보다도 먼저 타계로 갔으니 역시 운명은 재천이고 인생지사는 새옹지마인 것 같다.

잘 가거라 친우야, 우리 얼마 후 다시 만나자.

이홍표드림